

편집인의 말

金 永 植

창간 때부터 줄곧 편집인으로 봉사해 온 송상용 교수가 학회장이 되면서 내가 편집인 자리를 맡게 되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학회지를 창간했고, 그 후 여러가지로 힘든 여건 속에서 꾸준히 발행을 계속했을 뿐만 아니라 이만큼 탄탄한 위치로 올려 놓은 그의 뒷자리를 물려받고 보니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지난 12년간 편집인으로서의 송교수의 업적은 이번 호에 게재된 “총목록”에 잘 나타나 있다. 나로서는 그가 시작하고 추진해 오던 일을 이어받아 계속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고 또 그렇게 할 계획이다. 다만 그같은 “이어받음”이 더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하여, 송교수 자신이 구상했으나 실현시키지 못했던 일들을 포함해서 몇가지를 실행에 옮겨 보기로 했다.

우선 금년부터 연 2회 발간을 시작한다. 그동안 학회지의 페이지수가 늘어나서 몇년 전부터는 200면 내외에 이르렀고, 이제는 연 2회 발간하기에 충분한 분량이 되었다. 원고의 분량이 늘어남에 따라 한 차례의 편집 및 인쇄 작업의 양도 과다해졌고 때로는 그것이 발행이 지연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한 권이 나오고 다음 권이 나오기까지의 1년이라는 간격도 투고자나 독자 모두에게 지나치게 길고 불편했다. 더구나 우리 학회지가 과학사 분야에서 국내 유일의 학술지란 점에서 더 자주 발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자주 지적되기도 했다. 물론 일년에 한 번 내던 것이 두 번으로 늘면 일이 그만큼 늘기도 하겠지만 그 결과 생기는 좋은 점이 훨씬 많을 것으로 기대한다. 발행일자는 6월(제1호)과 12월(제2호)로 정했다. 이에 따라 별도로 원고 마감일을 정하지 않고 수시로 투고를 받아 3월말과 9월말까지 심사, 편집 등 준비작업이 끝난 원고를 각각 제1호와 제2호에 실기로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발행기일을 엄수하는 일도 더 쉬워질 것으로 생각된다.

투고규정을 새로 마련해서 뒤쪽 안 표지에 실었다. 게재 원고의 종류를 논문, 연구노트, 토론, 자료, 綜說, 서평 등으로 규정했으므로 그 각각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하겠다. 우선 논문으로는 독창적 연구결과를 게재하는 방침을 계속 따를 것이다. 독창적 업적이지만 본격적인 논문의 형태를 갖추지 않고서도 발표할 수 있는 성격의 연구결과를 신기 위해 연구노트라는 항목을 그리고 이미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에 대한 비판, 토론을 실는 토론 항목을 신설했다. 새로운 자료의 소개나 번역을 위주로 한 경우에는 자료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독창적인 연구결과는 아니더라도 일정한 주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정리·종합·분석·비판한 원고는 綜說로 실기로 하겠다. 아직도 과학사가 학문적으로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좋은 綜說은 독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최근 학계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주제에 대해 소개하는 綜說 원고의 투고를 기대한다. 그동안 간헐적으로 게재하던

서평을 정례화하여 과학사 분야의 국내 도서는 물론 외국 도서로서도 주목할 만한 책은 서평을 신기로 했다. 준비에 시간이 촉박해서 이번 호에는 국내 및 외국 도서 각 한 권씩의 서평 밖에 신지 못하지만 다음 호부터는 더 많은 수자가 실릴 수 있을 것이다. 서평 대상 도서는 편집진에서 선정하여 적당한 평자에게 원고를 청탁하는 것이 주가 되겠지만 회원의 추천이나 투고도 환영할 것이다. 본격적인 서평 이외에 “신간도서”란을 신설해서 국내외 과학사 분야 신간 도서 및 우리 학회 회원들의 신간 저서 및 역서를 간단히 소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도 역시 회원들의 협조를 기대한다.

학회지의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 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한 전 편집인의 방침도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서양의 과학과 한국을 중심으로 한 동양의 과학 사이의 균형, 과학 분야별 균형, 시대별 균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국내 유일의 과학사 분야 학술지인 우리 학회지로서는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밖에도 우리 말 논문 이외에 외국어 논문을 어느 정도 포함시키는 일도 계속하려고 한다(지난 12년 동안 전체 논문중 대략 3분의 1 정도가 영어로 씌어진 것들이었다). 그러나 우리 학회와 국내 과학사학계의 현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최근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과학사 전공학자들과 아직도 대다수를 점하는 아마추어 과학사학자들과의 사이의 균형이다. 먼 후에 가서 우리 학계와 학회가 전공학자들에 의해 주도되게 되리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을 위해서도 현 단계에서의 아마추어 과학사학자들의 활동과 기여는 필요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원고 심사와 편집 등의 과정에서 이같은 여러 면에서의 균형이 계속 유지되도록 유념할 것이다.

새로 편집인 일을 맡으면서 훌륭한 젊은 학자 두 사람을 “편집인보”로 맞이하여 함께 편집 작업을 하는 행운을 누리게 되었다. 서울대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의 박사과정에서 연구하면서 여러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두 사람중, 김근배님은 전체 편집 작업을 나와 나누어 할 것이고 문중양님은 서평과 신간도서 소개를 담당할 것이다. 바쁜 가운데에서도 어려운 청을 받아들여 준 두 사람에게 감사하며, 회원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바란다.